

배포

2026. 7. 24.(금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2026년 기업설명회(IR) 개최

- LH, 주요 투자기관 대상 기업설명회(IR) 개최.. 26년 자금조달계획 발표
- 조달원 다변화 전략, 높은 안정성 등 LH채 강점 집중 소개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지난 23일 주요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「2026년도 기업설명회(IR)」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.
 -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및 투자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. 설명회에는 은행, 보험사, 자산운용사 등 주요 채권 투자기관 및 시장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.
- 이날 LH는 총 20조 원 규모의 2026년 자금조달계획을 발표했다.
 - 특히, LH는 국내원화 일반채권 외에도 해외채권, 구조화채권, 중장기 CP 등을 활용한 조달원 다변화 전략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 수급 부담을 완화하고, 시장 수급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·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.
 - 또한 LH는 정부의 의무적 손실보전 대상기관(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 11조)이므로 LH채에 대한 BIS기준 위험가중치는 0%인 점과 무디스(Aa2), S&P(AA), 피치(AA-)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최고 신용등급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.
- 이번 설명회에 이어 LH는 국내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LH채 투자 강화를 위한 개별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, 해외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도 연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.

- 한편, LH는 올해 상반기에 총 9.5조 원을 조달했다. 국내에서는 8.3조 원을 조달했으며, 해외에서는 5억(한화 약 5,375억원) 호주달러화 표시 채권(공사 최초),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(한화 약 1,882억원) 등 총 1.2조 원 규모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.
- 하반기에도 일반 원화채와 더불어 중장기 CP, 원화채 대비 낮은 이자로 조달 가능한 해외채 발행 등 조달원 다변화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을 차질없이 이어갈 계획이다.
- LH 관계자는 “글로벌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과 법적 손실보전 구조를 통한 높은 안정성을 기반으로,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하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이어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재무처	책임자	팀 장	주남욱	(055-922-4852)
		담당자	차 장	정승연	(055-922-4868)